

## 제가 마음속으로부터 존경하는 스승 김수경 선생님

최응구 (崔應九)

[寄稿] 私の心から尊敬する師匠, 金壽卿先生

먼저 저희들이 존경하는 스승 김수경 선생님을 기리어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주신 주최자 측과 선생님들께 고맙게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김]혜영 선생의 부탁대로 제가 본 <수경 선생님>에 관하여 짤막하게 적어 보겠습니다.

저는 1961년 9월 연변대학 조문학부를 졸업하고 중국 류학생의 신분으로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원에 가서 3년간 연구생(대학원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때 저의 지도교수가 김수경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때 한 반에서 공부한 연구생은 셋이었습니다. 종합대학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공부한 박용순 [문체론; 후에 김수경 『조선어 문체론』 (고등교육도서출판사, 1964) 을 토대로 『조선어 문체론』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66) 을 저술한 조선어학자] 선생과 중앙 당기관에서 일하면서 공부한 한정직 [문체론; 로동당중앙당학교 교원 등을 역임] 선생이었습니다. 우리는 문체론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평양과 서울 어디에도 문체론 연구가 아직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첫 시간에 수경 선생님은 불란서 문체론 책을 가지고 오셔서 처음부터 조선말로 읽어 내려가셨고 저희들은 그것을 열심히 필기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희한한 일여서 쉬는 시간에 불란서 문체론 책을 뒤져보았는데 전부 불어로 되어 있고 조선 글은 한 자도 없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에 용순 선생에게 물었더니 수경 선생님은 여러 가지 외국어를 아주 능란하게 하신다면서 쓰딸린의 <맑스주의와 언어학의 제 문제> [원전은 1950년에 소련에서 출판, 조선어 번역은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1952년에 출판] 도 수경 선생님이 읽고 제자들이 필기하여 출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불란서 문체론이 끝난 뒤에는 중국의 유명한 언어학자 진망도(陳望道) 선생의 <수사학발범(修辭學發凡)> [원저는 1932년 초판] 을 또 그런 식으로 읽어 내려 가셨습니다. 중국 고문과 현대문이 섞인 중국 사람

도 보기 힘든 책입니다. 같은 책을 보고 있는 저에게 틀린 데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틀린 곳을 한 군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런 분도 세상에 있구나 하고 감탄하였습니다. 일곱 가지 언어를 이렇게 하신다고 친구들이 알려 주었습니다.

선생님이 쓰신 <조선어문법> [김수경이 참여한 같은 제목의 문법서는 1949년, 1954년, 1960년, 1964년에 출판되었는데, 그 가운데 어느 것을 가리키는가는 알 수 없음]과 <현대조선어(전3권)> [1961-62년 간행] 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중학교와 대학들에서 교과서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1945년 8월의] 해방 후 그 나라의 국어학의 기초로 되었습니다. 그 분이 쓰신 <조선어문체론>은 [1964년 간행] 조선어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지금 조선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소장을 비롯하여 어학계에서 중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의 모두가 1950년대와 60년대 종합대학을 졸업한 수경선생님의 제자들입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겸손하고 자애롭고 따뜻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친절하게 선생님을 그냥 “수경 선생님”이라고 스스로없이 불렀습니다. 학생 때 저를 댁으로 불러서는 밥을 먹이곤 하셨습니다. 1990년대까지도 평양에 간 저를 댁으로 불러서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평양 시내 안 김책공대 옆으로 이사오셨는데 저는 선생님 댁에 들어서서 깜짝 놀랐습니다. 벽에 걸린 노랗게 된 작은 족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학생 때 선생님께 드린 선물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족자를 가리키며 볼 때 마다 저를 생각하셨다고 하셨습니다. 30년이 넘게 한 제자가 준 자그마한 족자 하나를 노랗게 색이 바랄 때까지 벽에 걸어두고 계신 선생님의 마음이 내 가슴에 와 닿는 듯 저렸습니다.

시간 관계로 이만 끝내겠습니다.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